

## ‘금빛 도쿄’ 꿈꾸는 김학범호 ‘지피지기+디테일’에 주력

김학범 감독 상대국 정보 수집·날날이 파악 상대 맞춤형 전략, 아르헨·프랑스전서 기동 물뿜린 운동장 등 디과 비슷한 환경서 훈련도

개막이 임박한 2020도쿄올림픽에서 금빛 시상대를 꿈꾸는 김학범 감독의 올림픽축구대표팀이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에서 연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대회 엔트리에 발탁된 22명은 조지력 다지기와 세부전술 숙지에 열을 올리고 있다.



김학범 감독

올림픽대표팀의 과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대국 분석도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 지도자 시절부터 ‘지피지기(知彼知己)’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 감독은 새벽잠을 줄여가며 상대를 파악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

출전국들이 대회 엔트리를 공개했지만, 사실 쓸 만한 자료 확보가 쉽지 않다. 당장 올림픽 조별리그 B조 1차전에서 만날 뉴질랜드는 2019년 하반기 오세아니아 지역에선 이후 실전 이력이 없다. 루마니아올림픽대표팀도 최근 제대로 모이지 않았다. 그나마 3월 북중미 예선을 치른 온두라스의 최신 버전 자료만 비교적 수월하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포기하지 않았다. 지구촌 전역에 뻗은 인적 네트워크와 정보망을 총동원해 영상 및 전력 리포트 확보에 열을 올렸다. 과거 K리그 사령탑 시절, 김 감독은 비시즌마다 유럽과 남미를 자주 오가며 현대축구의 흐름을 파악해왔고, 그렇게 풍성한 인맥을 갖게 됐다.

팀 자료가 부족하면 선수들에 조정을 맞췄다. 올림픽 엔트리에 발탁된 선수들의 장·단점, 특징까지 날날이 파악한다는 의도다. 루마니아의 경우, A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의 교집합 범위의 선수들이 적지 않아 A매치 자료도 상당히 유용하다. 올림픽대표팀 스태프는 “(김학범) 감독님이 상대국 자료를 구하는 작업에 많은 공을 들였다. 다행히 적잖은 자료를 확보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렇게 챙긴 수확물은 디테일한 ‘맞춤형’ 전략 마련에 활용된다. 전투의 기본은 상대가 잘 하는 부분을 차단하는 일이다. 상대의 특징과 플레이 스타일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아르헨티나(13일·경기도 용인)·프랑스(16일·상암)에 이어질 평가전 시리즈에서 해당 전술이 시험 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김학범호’는 환경 적응에도 공을 들인다. 일본의 경기장 그라운드와 미끄럽고 물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물을 뿌려놓고 훈련한다. 스프링클러는 물론 필요할 때면 소방호스까지 동원한다. 잔디도 바짝 깎아 볼 스피드와 템포를 높였고, 훈련시간대를 오후 5시 이후로 잡아 신체 리듬을 경기시간대에 맞춰가고 있다. 뉴질랜드전은 오후 5시, 온두라스전은 오후 5시30분 킥오프되며 온두라스전만 오후 8시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

### 제주 선수 1명 확진...20일 FC서울-제주전 연기

K리그1(1부) 제주 유나이티드의 선수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여파로 20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던 FC서울-제주전 정규리그 경기가 연기됐다고 한국프로축구연맹이 7일 밝혔다. 제주 선수 A가 6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가운데 방역당국이 훈련을 함께한 선수단 대부분을 2주 자가격리 대상으로 분류한 데 따른 조치다. 제주는 사무국 및 선수단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고, 다행히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 연맹은 연기된 경기의 개최시기는 추후 확정하기로 결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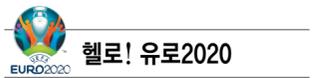
## ‘아주리 군단’, ‘무적함대’ 스페인 꺾고 결승 선착



이탈리아 선수들이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유로2020 4강전에서 승부차기 점전 끝에 스페인을 따돌린 뒤 관중석을 향해 환호하고 있다. 이탈리아는 53년만의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 이탈리아 ‘53년만의 2번째 우승’ 눈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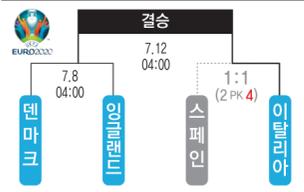
잉글랜드-덴마크 승자와 12일 결승전 승부차기 실축 모라타 ‘영웅에서 역적’ 대회 최다우승 스페인, 정상 탈환 실패



헬로! 유로2020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을 꺾고 2020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2020) 결승에 선착했다. 로베르토 만치니 감독이 이끄는 이탈리아는 7일(한국시간) 영국 런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대회 4강전에서 스페인과 연장까지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4-2로 이겼다. 이탈리아는 후반 15분 페데리코 키에사의 선제골로 앞서

유로2020 4강 토너먼트 일정 (한국시간)



가다 후반 35분 스페인 알바로 모라타에게 동점골을 내줘 연장까지 끌려갔지만, 결국 승부차기로 결승에 올랐다. 선제골의 주인공 키에사는 이날 경기 최우수선수로 선정됐다.

이탈리아는 준우승을 차지했던 2012년 대회 이후 두 대회 만에 다시 결승 그라운드를 밟게 됐다. 또 최근 A매

치 무패행진 신기록을 33경기(27승6무)로 늘렸다. 축구에서 승부차기는 무승부로 간주한다.

이탈리아는 잉글랜드-덴마크전 승자를 상대로 12일 오전 4시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53년 만이자 통산 2번째 우승에 도전한다. 반면 독일과 함께 유로대회 최다우승(3회) 기록을 보유 중인 스페인은 9년만의 정상 탈환에 실패했다.

5만8000여 관중이 입장한 가운데 치러진 이날 경기에선 전반부터 치열한 공방이 전개됐지만, 골은 쉽게 터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후반 15분 균형을 깬다. 상대 수비진을 흔든 키에사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강력한 오른발 슈트로 골망을 흔들었다.

다급해진 스페인은 후반 25분 모라타

를 투입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이 카드가 적중했다. 후반 35분 모라타가 다니 올모와 패스를 주고받으며 이탈리아 수비진을 뚫은 뒤 왼발 슈트로 동점을 만들었다.

승부는 연장으로 이어졌다. 스페인은 크로아티아와 16강전, 스위스와 8강전에 이어 또 한번 연장 승부를 펼쳤지만 지칠 줄 모르고 이탈리아를 몰아붙였다. 하지만 득점에는 실패한 채 승부차기에 돌입했다.

양 팀 모두 첫 번째 키커가 실축한 가운데 이탈리아는 나머지 4명의 키커가 모두 성공한 반면 스페인은 4번째 키커 모라타의 슈트가 이탈리아 골키퍼 잔루이지 돈나룸마의 선방에 막히면서 고개를 숙였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 ‘메시 VS 네이마르’ 14년만에 결승 격돌

아르헨, 콜롬비아 잡고 결승 진출 네이마르의 브라질과 11일 ‘빅뱅’



2021남미축구선수권대회(코파 아메리카) 결승에서 리오넬 메시(34·아르헨티나)와 네이마르(29·브라질)의 빅뱅이 성사됐다. 아르헨티나는 7일(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에서 벌어진 콜롬비아와 대회 준결승에서 1-1로 비긴 뒤 승부차기에서 3-2로 이겼다. ‘남미 월드컵’으로 불리는 이 대회에서 총 14회 정상에 오른 아르헨티나는 1993년 우승 이후 28년만의 정상

탈환을 노린다. 11일 열릴 결승 상대는 남미의 라이벌 브라질이다. 팬들이 바라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완성됐다.

남미의 양대산맥인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의 결승 격돌은 14년만이다. 두 팀은 2004년과 2007년 연속으로 결승에서 맞붙었고, 모두 브라질이 웃었다. 이번에도 브라질이 이긴다면 2019년에 이어 대회 2연패이자 통산 10번째 우승을 기록한다. 아르헨티나가 정상에 오르면 통산 15회로 우루과이와 함께 대회 최다우승국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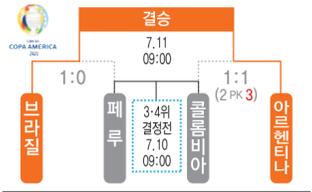
특히 2013년부터 4년간 FC바르셀로나(스페인)에서 한술밥을 먹었던 메시와 네이마르의 자존심 대결이 불 만하다. 세계 축구계를 대표하는 둘은 공교롭게도 아직 메이저대회 우승이 없다. 그래서 이번 결

승전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린다. 둘 중 한 명만 메이저대회 우승의 한을 풀 수 있다.

메시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는 존재다. FC바르셀로나의 리더로서 스페인 리그는 물론 클럽대항전에서도 우승을 쓸어담았다. 하지만 아르헨티나대표팀 유니폼을 입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가대항전으로 열리는 월드컵과 코파 아메리카에선 번번이 탈락의 고배를 마시며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했다. 30대 중반의 나이를 고려하면 이제 기회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대회 6경기에서 4골·5도움으로 득점 및 도움 선두를 달리고 있는 메시는 조국 아르헨티나에 반드시 우승컵을 바치겠다는 각오다.

2골·3도움으로 활약하며 브라질을 결승으로 이끈 네이마르도 우승이 목마르다.

코파 아메리카 토너먼트 일정 (한국시간)



2년 전 브라질이 이 대회에서 우승할 때 네이마르는 부상으로 빠졌다. 2014년 브라질월드컵과 2018 러시아월드컵에서도 정상에 서지 못했다. 이름값에 비해 메이저대회 성과는 초라하다. 경쟁한 역대 브라질 레전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선 메이저대회 우승이 절실하다. 흥팬들 앞에서 메시지를 넘고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 ACL 토너먼트 또 변경...K리그 일정짜기 ‘골치’

16강전부터 단판승부 일정 축소 “FA컵·亞최종예선 등 변수 많아”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ACL) 토너먼트 일정이 대폭 축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협이 여전한다는 판단에 따라 16강전부터 결승전까지 모두 단판승부로 진행하기로 최근 결정됐다.

올해 대회는 당초 16강전만 9월 14~15일 단판승부로 치른 뒤 8강전부터 결승

전까지는 홈&어웨이로 펼쳐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동아시아와 서아시아로 나뉘어 중립지역에 4개 팀씩 모이기로 했다.

K리그가 속한 동아시아 권역은 10월 17일 8강전, 20일 4강전을 치른다. 서아시아 권역은 10월 16일과 19일 각각 8강전과 4강전을 진행한다. 11월 23일 결승전도 서아시아 개최가 결정됐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인해 대회 관계자와 선수들의 건강, 안전을 지키고자 이동을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했다”는 것이 AFC의 설명이다.

ACL의 일정 변화는 K리그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전북 현대, 대구FC)와 태국 방콕(울산 현대, 포항 스틸러스)에서 한창 진행 중인 대회 동아시아 권역 조별리그로 인해 이미 긴 휴식기를 보내고 있는 마당에 스케줄 추가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당장 16강전부터 꼬일 수 있다. 이 기간 K리그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ACL 조별리그 결과에 따라 일부 팀이 해외 원정을 떠날 가능성이 있어서다. 귀국 후 일정기간 불가피한 격리가 가장 큰 고민거리다.

그나마 위안은 8강~4강 토너먼트 시점이 K리그1(1부) 정규리그 33라운드 이후라는 점이다. K리그는 33라운드를 마친

뒤 상(1~6위)·하위(7~12위) 그룹으로 나눠 파이널 라운드(팀당 5경기)를 치러 최종 순위를 가린다.

올 시즌은 10월 3일 동시간대(오후 3시)에 33라운드가 펼쳐진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내부적으로 파이널 라운드 일정을 잡았으나, ACL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K리그 관계자는 7일 “비정상적 시국에 변수가 너무 많다. FA컵에 2022카타르월드컵 아시아 최종예선, 입국 후의 격리문제 등 고려사항이 많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남정현 기자 yoshike3@donga.com